아시아교육연구 4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3, Vol. 4, No. 3, pp. 171-189.

#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봉사학습의 탐색 -도덕과 교육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박효종(朴孝種)* ·손경원(孫京元)**

논문 요약

봉사활동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었고, 봉사활동 시행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의 한 일환으로, 봉사활동과 도덕과 교육을 연계한 봉사학습을 탐구하고자 한다. 봉사학습은 봉사활동을 학습적 견지에서 체계화한 형태의 봉사활동으로, 상호성, 시민윤리 교육과의 연계, 반성적 숙고의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봉사학습은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요구한다. 봉사활동을 인성과 시민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 교육에 통합한 봉사학습으로의 전환은 봉사활동의 문제들을 해결할 현저한 대안으로 부각된다.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 적용되기에는 개인주의적인 학교 분위기나 교사들의 시간부족, 봉사학습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의 부족들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직전 교사교육이나 현직 교사교육에서 봉사학습을 배우고 이미 개발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응용한다면, 봉사학습의 실제적 적용의 어려움은 줄어들고 다양한 봉사활동 기관과의 협력을 쉽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봉사활동, 봉사학습, 도덕교육

## I. 서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도입된 학생 봉사활동은 1996년

*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과

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교육수단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의무적 봉사활동의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봉사활동의 제도에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마저 의문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제도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도에서 모색되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확대,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체제 확립, 봉사활동 지도 전담인력의 확보와 전문화 추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체제 강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대책 등 청소년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제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김정배·고원용·정익재, 1999).

그런데 이러한 활성화 방안들은 주로 봉사활동의 지원 및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시행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확실히 지원체계의 확립은 중요하다. 봉사활동의 지원 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봉사활동의 지원체계 확립의 완비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청소년 봉사활동 제도화의 기본취지가 인성과 시민성 교육임을 고려한다면 교육적 노력의 주체의 확보와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교육효과를 위해 필요한 학습장치 확보 등 학습적 접근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봉사활동과 연관된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일환으로 도덕과 교육과의 연계 하에 운영되는 봉사학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봉사활동과 연관된 많은 문제들을 분석하며 학교중심의 봉사학습의 필요성을 논의한 다음, 봉사활동을 학습적으로 접근하는 봉사학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도덕과 교육과 봉사학습의 연계와 실행에 따르는 도전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Ⅱ. 봉사활동의 의의와 한계

봉사활동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접적인 자원(정신적·육체적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어떤 댓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자발적 의지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자발성, 모든 사람이나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공공성, 댓가를 바라지 않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무상성, 사회문제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개척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계속성을 원칙으로 한다(교육부, 1996). 하지만 학생 봉사활동의 경우 이러한 자원봉사의 기본적 원칙이외에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부가된다. 따라서 봉사활동이 반드시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전제로 하기보다 교육적 활동으로 간주하고 자발적 참여를 흥미와 취미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의 자율적 선택의 존중으로 보다 확대 해석하고 계속성 역시 완화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생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Conrad & Hedin, 1989; Hepburn, 1997; Kraft, 1996; Kahne & Westhemer 1996). Conrad와 Hedin에 따르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이나 도덕발달과 같은 개인적 성장과 발달, 기본적 학업기술, 문제해결이나 비판적 사고, 책이나 강의를 통해 설명할 수 없지만 꼭 알아야 할 통찰력과 같은 지적 성장과 발달,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 민주 시민의 참여정신, 정치적 효능성과 같은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기대효과에 힘입어 1996년 봉사활동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교육적 효과와는 달리 시행과정 상의 왜곡과 파행이 두드러졌고 이에 봉사활동은 교육계의 논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가장 비교육적이고 부작용으로 드러난 사례는 대리 봉사활동과 허위증명서 발급이다. 학생이 해야 할 봉사활동을 학부모나 형제자매가 대신해주고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아예 봉사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다.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의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피 봉사기관에서 지적하는 왜곡과 부작용 사례로 불성실, 무질서, 공손하지 않고, 쉬운 일만 찾는 등 형식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양한 봉사활동 영역이 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쉬운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소방서와 같은 관공서로 몰려들고, 또 일손돕기 활동에로 집중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해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거나 접근하는데 용이하지 않고, 봉사활동이 사회적 문화로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봉사활동의 대상기관 역시 봉사활동의 교육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달가워하지 않거나 봉사 수요를 감당할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최현섭, 2000).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봉사활동을 입시에 반영하는 정책 탓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의무적 봉사활동 그 자체가 봉사활동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이광호 외, 1996; 문성학, 2001). 하지만 봉사활동의 제도화를 지지하며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려는 시도의 대부분은 봉사활동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다(최현섭, 2000; 최윤진, 2000; 윤정일 외, 1998). 즉, 자원봉사활동의 의무화는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나마 봉사점수라는 강제성을 띤 형태라도 어린 시절부터 봉사경험을 쌓는 것은 습관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봉사활동의 왜곡과 부작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반영이라기보다 학생, 학부모, 교사, 사회가 인성이나 시민성의 교육이라는 봉사활동의 근본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문제로 진단한다. 그리고 현재의 봉사활동의 부작용은 수요처인 봉사 대상기관 및 시설에서의 무성의와 준비부족으로 인한 것도 많지만 학생봉사활동을 직접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과 학교측의 책임 수행의 미비로 인한 원인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최윤진, 2000; 김전승, 2000). 봉사활동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보다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학생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와 교육적 노력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생활의 부수적 활동영역에 불과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이 되어야 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에 봉사활동의 시행상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목 못지 않게 학교 내의 봉사활동의 운영체제가 계획적으로 내실 있게 갖춰져야 하며 학교내의 봉사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적으로 보수를 바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완전한 자발성과 지속성을 갖춘 봉사활동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학생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것은 그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년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적 측면보다 학습적 측면에서 계획되고 지도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특히 청소년 봉사활동이 미래의 건강한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개인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방법이라면 학생봉사활동은 보다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교육과정의 일부로 모색될 필요는 충분하다.

봉사학습은 바로 봉사활동을 학습적 관점에서 체계화한 변형된 형태의 봉사활동이다. 미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봉사활동이 바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여타의 기관들과 협력하며, 학습과 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봉사학습으로의 전환은 봉사활동에 관한 상당한 논쟁과 연구결과의 산물이기도 하다.

## III. 봉사학습의 개념과 특징: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1. 지역공동체 봉사활동에서 봉사학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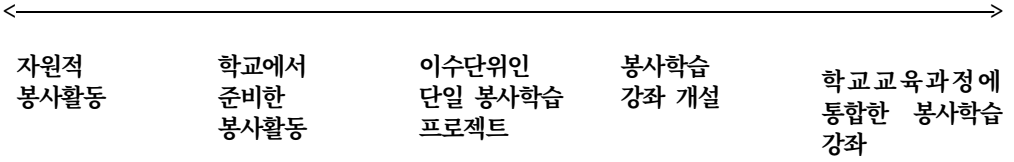
미국은 지난 90년 국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미국2000: 교육전략'을 발표하였다. 교실위주의 교육의 문제점들을 자각하고 새로운 방향의 청소년개발을 모색하였다. 많은 미국의 교육학

자들간의 열띤 논쟁 끝에 봉사학습이 학교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한 가장 믿을 만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추병완, 1999, p. 391). 그 결과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정책적 대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미국 사회내에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90년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을, 1993년에는 국가 및 지역사회자원봉사 지원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of 1993)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에 의해 각 지역의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은 전미 자원봉사연합으로 통합되어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게되었다(김정배 외, 2001).

1993년의 통계에 따르면 17개 주에 이르는 지역에서 공립고교의 사회봉사 졸업 필수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들 고교는 적게는 10시간에서 많게는 240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해야만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주고 있다. 특히 메릴랜드 주의 경우 203개 공립고등학교가 75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만 졸업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애틀란타 시의 경우도 75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졸업필수로 요구하고 있다(김정배 외, 2001; 추병완, 1999; Anderson, 1999).

이러한 의무적 봉사활동에 대한 비판과 항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무적 봉사활동이 시행되면서 과연 의무적 봉사활동이 시민성의 교육인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의무적 봉사활동에 대해 비판하는 진영에 따르면 의무적 봉사란 비자발적 봉사이며,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규학교시간 이후에 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이나 음악감상, 숙제하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며, 배려는 강제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의 체험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의무적 봉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봉사활동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을 훈련하는 탁월한 방법이며, 직업을 탐색하고 일의 기술을 얻게 하며,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Anderson, 1999, pp. 5-7).

이러한 의무적 봉사활동의 논쟁을 거듭하면서 비판자들의 논의를 수렴하며, 좀더 체계적이고, 시민 교육적 효과를 고양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으로 전개되어갔다. 현재 미국내에는 학생 스스로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케하는 형태로부터 학교 정규교과시간에서 교육과정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봉사학습의 형태에 이르는 여러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림 1] 봉사학습의 여러 형태

좌측의 봉사활동이 봉사활동의 계획과 수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기는 형태인 반면 우측의 봉사활동으로 갈수록 교사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학생의 봉사활동 경험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육구에 더 많이 둔다. 봉사시간을 단지 의무화하는 좌측의 봉사활동으로부터 우측의 봉사학습으로의 전환과 점진적 전개가 미국 봉사활동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다. 봉사학습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 당시 550만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학습을 이수하였으며, 1984년부터 1997년 사이에 봉사학습의 이수비율이 3,663% 증가하였다(Anderson, 1999, p. 4).

이러한 봉사활동으로부터 봉사학습으로의 전환은 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의 고양을 위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환이라는 점에서 진보와 발달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환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결과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많은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봉사활동의 경험이 자동적으로 시민윤리교육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그리고 반성적 숙고의 기회를 제공할 때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대표적인 연구로 Rutter와 Newmann(1990)은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8개의 학교를 평가하고 향후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사회적 책임감, 의미있는 공공선의 기회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적 세미나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교과와의 연계없이 이루어지던 봉사활동을 1989년 봉사학습에 관한 윙스프레드 회의(Wingspread Conference)를 기점으로 시민교육의 학습과의 결합이 모색되었다(Hepburn, 2000, p. 45).

## 2. 봉사학습의 특징과 요건

봉사학습은 학습적 관점에서 기존의 봉사활동의 성격을 새로이 해석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절차나 단계를 구비하여 봉사활동을 더욱 체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봉사활동의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학교와 교사들이 봉사활동을 특별히 계획하거나 감독하지 않는다. 물론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참여를 확인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교실학습이나 평가와 분명한 연계가 있지 않다. 반면 봉사 학습의 경우 봉사활동 이전에 학생들은 먼저 공동체의 실태와 환경을 연구하고 "실제(real)" 공동체의 필요를 결정하며 그들의 체험을 준비한다. 교사, 학교 행정가, 학생들은 문제가 되는 이슈와 연관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봉사활동을 할 지역과 시기, 할 일들을 결정하고 그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고 전개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슈에 대한 지식과 참여를 평가받는다. 교사와 학생은 봉사 활동에서 느끼거나 알게된 점들에 대해 반성적 숙고(reflection)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협동해서 그들의 의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시민적 의무의 중요성과 개인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를 논의한다(Chapin, 1998, p. 4).

따라서 봉사학습은 봉사활동과 구분되는 몇몇 특징이 있고 그러한 특징을 살려 운용되기 위해서는 구비하여야 할 요건이 있게 된다.

### 1) 봉사자와 봉사수혜자간의 상호성

봉사학습은 봉사자와 봉사 수혜자간의 상호성을 전제한다. 봉사학습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활동이거나 경제적·사회적 자원(resource)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자원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자선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Radest(1993)는 이상적 의미의 봉사활동은 봉사자로부터 느끼는 직접적 감정을 보상으로 얻게 됨을 지적하며, 봉사의 개념 안의 암묵적 구분인, 힘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간의 구분에 도전한다. 그에 따르면 봉사자로서 봉사수혜자를 대하는 것은 봉사자의 내면의 타자를 대응하는 것이기에, 봉사활동은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받는 행위이다. Kendall(1990) 역시 상호성을 봉사자와 봉사수혜자나 집단 간의 주고받음의 교환으로 설명한다. 그는 1960-70년대 학생봉사활동이 상호성의 이상을 구현하지 못했으며 동등한 상호교환이라는 관계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계는 쉽사리 깨져버린다는 점을 배웠노라고 말했다.

봉사학습에서의 봉사자와 봉사수혜자는 모두 서로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지 영향을 주며 결정하게 한다. 봉사학습의 모든 당사자들은 학습자들이다. 봉사학습의 참여를 통해 봉사자와 봉사 수혜자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게 된다. 특히 상호성의 관점에서 봉사자는 봉사수혜자가 제공하는 봉사의 기회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기에 봉사자와 봉사수혜자간의 동등한 관계를 함축하게 된다. 또한 봉사수혜자는 단지 봉사의 수혜자로서 접근되기보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며, 봉사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봉사학습의 기본관점은 학생과 공동체 모두 상호 도움이 되는 일이며, 봉사자와 봉사 수혜자간의 상호 존중과 책임을 전제한다(Kendall, 1990; Rhoads, 1997).

이러한 상호성의 관점을 전제할 때 봉사활동은 단지 불우한 다른 사람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자선적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노력을 하려는 마음을 심어준다.

### 2) 교육과정과의 연계

봉사활동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외의 자발적 활동이라면 봉사학습은 봉사활동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교육과정에 연계되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봉사

학습의 경우 봉사활동이 정규교과에 대한 학습과 연관되어져 있다(Hepburn, 2000).

봉사활동이 학교교육과정과 주의깊게 연계되었을 때 그리고 봉사경험이 분명하게 교과목의 내용에 연관되어 있을 때 지역공동체의 봉사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수업과 연관된 봉사는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한다. 교실에서 배운 학문적 내용과 구조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과 연관된 지식의 구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봉사기간 동안, 학생들은 봉사체험을 교실의 학습과 연관지어 숙고함으로써 봉사체험과 교실수업이 상호작용 하게 된다.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교실의 학습은 시민적 지식, 문제해결에서의 학생의 기능, 의사소통, 협상, 사회적 행위들을 연마하게 한다(Raskoff& Sundeen, 1998; Rutter & Newmann, 1989).

봉사학습은 타 교과와도 연관되지만 특히 시민윤리교육과 연관되어 이루어진다. 봉사활동이 시민윤리교육과 연관될 때 바람직한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 된다. 민주적 시민성이 봉사활동에 근거할 때 학생들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인 지식, 기능, 덕들이 함양될 수 있다. 또한 봉사학습은 시민사회, 시민정체성, 공동선에 대한 관심, 공동체적 삶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발한다(Hepburn, 2000).

봉사활동과 교육과정과의 결합은 주로 봉사학습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형태를 띠는 봉사학습의 경우 프로젝트의 대 주제를 먼저 선정한 후 4가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①학교나 교실 목표를 결정하기, ②내용과 학습경험들을 선택하기, ③주요한 학습목표를 확인하기, ④봉사학습 프로젝트를 위한 활동계획을 개발하기. 이러한 교육과정과 봉사활동을 결합하는 단계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학생의 관심에 맞고 각 교과의 핵심을 봉사활동주제와 연결하면서 동시에 단일한 내용 즉 봉사학습의 대 주제에 부합되는 지 여부 및 봉사경험이 어떻게 특정한 학습목적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봉사경험을 선택하고 봉사경험을 둘러싼 단원을 설정해야 한다(Kinsley, 1997, pp. 142-152).

### 3) 반성적 숙고의 강조

반성적 숙고는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종합하는 과정이다. 반성적 숙고의 과정을 통해 봉사자는 개념을 분석하고, 경험을 평가하고 이제껏 배운 학습의 맥락에 대해 의견을 갖게된다(The Alliance for Service-Learning in Education Reform, 1997). 즉 반성적 숙고란 학생 스스로 봉사경험을 자신의 기존의 가치관과 교실 학습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공동체의 실제적 맥락에서 봉사 경험과 연관된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한다. 예를 들면, 봉사학습 프로그램은 노숙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왜 노

숙자들이 굶주리게 되었는지, 나라의 어떤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문화적·논리적 요소들이 이미 모든 사람을 먹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을 잘 아는 세상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권장한다(Kendall, 1990).

청소년기의 봉사활동의 중요성은 봉사활동이 개인과 사회발달에 기여하고 동시에 자아정체성과 시민성을 통합적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데 있다.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의 단계의 특성상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업을 수행하기는 시기이다. 에릭슨은 정체성의 형성이야말로 한 개인의 핵심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문화의 핵심 과정이라고 하였다. 정체성 형성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과 가족의 직접적 관심사를 넘어서 (사회의)가치와 이념을 동일시하고 역사적 지속성을 확보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아 정체성은 사회역사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다(Erikson, 1969; Yates, 1995, p. 7).

봉사활동은 정체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맥락을 제공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람과의 차이와 공통성(commonalities)을 발견하게 된다. 학생들은 새로운 가치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상이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갈등에 빠질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진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의 자기이해에 대해 묻게되고, 복잡한 사회·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자신의 삶과 역할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봉사활동에 관한 자신과 타인의 이해에서 사회정치적 의식으로의 확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수많은 경험이 의식되지 않고 지성의 검토없이 흘러버린다. 봉사활동의 경험 역시 어떤 의식적인 반성적 숙고 없이는 일상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흘려버리게 된다. 반성적 숙고를 통해 봉사활동에서 배워야 할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Wade, 1997, pp. 96-97).

봉사학습의 계획 시 반성적 숙고를 위한 적절한 시간을 설정해야 하지만 반성적 숙고의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봉사활동의 준비, 수행, 반성적 숙고의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때 반성적 숙고는 봉사의 핵심주제와 사회적 이슈를 충분히 연계하며 이루어지게 된다(Wade, 1997, pp. 99-102). 그리고 반성적 숙고는 봉사활동에 일어난 사건은 물론 자신(self), 타자, 봉사활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시민성과 같은 특정 주제와 연관하여 숙고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통해 너는 무엇을 얻었고, 다른 사람이 너의 봉사활동으로 어떻게 나아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인가, 너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와 같은 봉사활동 자체에 대해 반성적 숙고를 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4) 학생, 교사, 지역공동체 간의 협력

학생의 흥미와 노력이 봉사학습의 핵심이다.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언제 어디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한 봉사활동이 어떻게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참여한다면,

봉사프로젝트의 한 파트너가 된다. 그러한 경우 학생들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주인의식을 느끼며, 좀더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게 된다(Hepburn, 2000).

봉사학습에서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동체 협력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이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지라도 교육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 장소제공자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 봉사활동기관들은 공동의 교육협력자로 스스로를 간주하지 않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학생의 인성과 시민성 교육의 사명을 자각하지 않는다. 교사는 적절히 공동체의 봉사활동 기관을 교육의 협력자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교육의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도록 묻고 교육적 사명에 헌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봉사학습은 학생, 교사,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Battistoni, 2000).

## IV. 도덕과 교육과 봉사학습의 연계

### 1. 봉사학습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도전들

봉사학습은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봉사활동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저한 대안임에 틀림없다. 봉사학습은 본래 봉사자의 자발성을 전제하는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오는 역효과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정규학교시간 내에 학습과 연계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반성적 숙고를 통해 봉사활동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내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봉사활동시간의 이수를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겨놓던 기존의 봉사활동의 정책보다 봉사학습으로의 전환은 의무적 봉사활동의 본래의 취지인 인성과 시민성의 함양이라는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덕과 교육과의 연계 하에 이루어지는 봉사학습으로의 전환의 경우 아주 생소하거나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봉사학습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찍이 학습과 연관없이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덕과 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질 때 봉사활동은 그 본래의 교육효과를 내며, 도덕과 역시 실천체험의 교수방법의 도입으로 교과 교육적 효과가 고양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정세구, 1996). 그 후 봉사활동은 도덕적 인성함양을 위한 수업모형의 일환으로서 수용되었고 학교교실 현장에 응용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교육부, 2000; 조강모, 2001; 추병완, 1999).

하지만 봉사학습이 기존의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덕과 교육의 수업모형으로 연

구되었으며 본래 취지인 인성과 시민성 함양에 지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현저한 대안이라 할지라도, 봉사학습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학교는 개인주의 분위기이라는 점이다. 학교가 이상적으로 공동체의 이념을 지향할지라도 많은 실제적 관행들은 개인적 성취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은 개별교과 시간을 통해서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고, 개개인의 과제를 부여받고 수업내용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받는다. 입시의 부담을 안고있는 학교현실을 감안한다면 학교는 협력보다 경쟁의 풍토가, 체험학습보다 지식위주의 학습이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학생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권장할 여력이 있지 않다. 교사들 역시 교사들간의 충분한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와 지역공동체간의 긴밀한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교사들은 봉사학습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봉사학습의 여타의 수업방법과는 달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봉사학습을 학습방법으로 사용하려는 교사들은 봉사활동을 교과와 연계하고, 적합한 봉사활동 장소를 물색하고, 다른 교사들이나 공동체의 봉사활동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봉사활동장소까지 이동하고, 봉사활동의 수행을 조력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반성적 숙고와 같은 일련의 봉사활동의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설사 봉사학습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지라도 정규 학교시간에서 봉사학습을 운영할 적당한 시간을 찾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셋째, 많은 교사들이 봉사학습에 대해 직전 교육 및 현직교육에서 배우지 않았으며, 게다가 봉사활동을 실제로 경험해 본 일이 없다면, 봉사학습이나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피상적이고 공허하여, 새로운 변화에 따르는 어려움들에 쉽게 포기하게 된다. 설혹 교사가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할지라도 봉사학습이 요구하는 반성단계나 교육과정과 적절한 연계에 익숙하지 않다면, 봉사학습의 수행 시 있을 과업들은 가중된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다.

더욱이 학습의 개념을 많은 지식의 습득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부모나, 동료 교사들의 비판에 직면할 때,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조직하고 구성하는 일을 소홀히 하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일 때, 실천적 체험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봉사학습을 적용하려 시도했던 교사마저도 '왜 굳이 봉사학습을 해야하는가'의 회의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 2. 봉사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덕과 교육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확실히 개인적이며 경쟁적인 학교풍토나 적절한 시간부족 등은 봉사학습을 새로운 도전으

로 간주하게 하며, 봉사학습의 활성화를 가로막는다. 봉사학습이 시민윤리교육의 교수방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끈기있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덕과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봉사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봉사학습이 성공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주의적이며 지식중심의 학교의 분위기가 봉사학습에 부합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보다 학생 중심적이며 유연한 시간계획 및 협력적 교수학습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실천체험을 통한 학습의 효과와 실천위주의 인성과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 입시위주의 학교풍토나 그로 인한 개인적 성취위주의 학교문화는 오랜 우리교육의 문제로서 인식되었음에도 그 해결과 변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 봉사학습의 적용에 적합한 학교풍토와 학교문화를 기다리며 봉사학습의 응용을 미루는 것은 봉사학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봉사학습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의 응용은 어떤 유형의 학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보다 봉사학습을 직전 교사교육이나 현직 교사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받은 경험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예비교사들이 봉사학습을 이용한 수업모형으로 응용해보고 반성적 숙고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면 장차 교사가 되어서도 학교와 공동체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며 학생들을 공동체를 활용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습을 유도 할 수 있다(Allan, 1993; 박효종, 2001; 추병완, 1999). 예비교사들이 봉사활동을 체험해보고 봉사학습을 교수방법으로서의 응용하는 교육을 받는다면 그리고 다양한 교사 연수를 통한 현직교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봉사학습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봉사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봉사학습이론이 우리의 학교교육풍토와 실제에 적합하도록 창조적 응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된 미국의 봉사학습의 경우 주로 학제간 프로젝트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시민윤리교과가 항상 연계된 교육과정 속에서 들어가고 있지만 봉사학습은 여러 타 교과와의 주제중심의 접근법을 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인성과 시민성의 함양의 목표로 하는 도덕 교과가 존재함으로써 봉사학습을 계획하고 응용함에 잇점과 제한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교과로서의 도덕과 교육이 존재하기에 큰 어려움 없이 봉사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해 도덕과의 교육목표를 잘 달성토록 기여하기에 봉사학습의 본래의 취지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 노력할 주체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덕과의 교수 학습시간으로는 봉사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봉사학습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충분히 얻지 못한 채 봉사학습의 많은 부담들을 도덕과 교사가 떠맡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접근은 봉사학습의 이론적 탐색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칫 봉사학습은 단지 이상적인 수업모형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사용되기 어려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간주되어 방치될 우려 때문이다. 도덕과에서 봉사학습의 도입과 적용의 큰 어려움이 바로 봉사활동 거리의 탐색과 봉사활동 터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 및 기관과의 연계이다. 교과와 연관된 다양한 적절한 봉사활동 거리의 설계 및 활동의 조력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되기 때문이다.

한가지 대안이 바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상당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자료를 적절히 이용하고, 학생 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지역단위의 봉사활동 센터나 봉사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시민단체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공기관 및 관련기관이 참가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및 봉사활동 시범학교 및 협력학교 운영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우수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개발하여 엮은 각종 연구 보고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봉사학습의 계획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1] 수록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봉사활동 터전 중심과 봉사활동거리 중심으로 나누어져[2] 도덕과 교육과정과 연계가 용이하며 각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봉사학습의 취지와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져 있어 봉사학습의 계획, 수립, 시행의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로효친과 연관된 봉사학습을 지도하려 할 때 흔히 양로원을 방문하는 활동을 떠올릴 수 있다. 시간과 거리의 면에서 학생들이 방문하기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는 일도 어렵지만 방문 시 다수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봉사활동거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이러한 활동터전 중심 및 대집단의 봉사활동은 자칫 행사성 봉사활동이 될 우려가 있으며[3], 따라서 교육적 효과의 담보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봉사활동을 굳이 활동터전에 국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활동거리 중심의 봉사활동의 모색이 요구된다. 경로효친과 연관된 봉사활동들의 경우 간접적 봉사활동으로 노인의 복지와 필

---

1 『봉사활동 시연프로그램 자료집』,『봉사활동 프로그램 모음집(상)(하)』,『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거리 개발(Ⅰ,Ⅱ,Ⅲ)』,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터전 메뉴얼』,『2002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모음집』 등이 있으며, 전국청소년 자원 봉사활동 정보망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터전 및 활동거리를 제시하고 있다.(http:/ / www.youthvol.net/ )

2 봉사활동 기관 중심의 봉사활동의 경우 활동터전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직접적 봉사활동은 물론 간접적 봉사활동을 포괄하는 봉사 활동의 경우 활동거리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구분한다.

3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이 집단 행사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전락할 우려는 충분히 있다. 물론 학교의 행사 참여가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가치와 덕목, 공공선 등과의 연관 속에서 반성적 숙고의 기회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성 참여의 교육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신차균(2000)은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시행되는 많은 체험학습이 교과 교육과의 어떠한 연계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집단행사 중심의 참여로 운영되는 경우 인성 교육적 효과가 적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요를 위한 각종 조사활동 및 노인관련 캠페인활동, 직접적 봉사활동으로 밑반찬 배달, 말벗하기, 신문 읽어드리기, 약국·병원약품 수령하기, 잔심부름하기의 구체적이며 직접적 봉사활동, 노인과의 연계를 통한 편지나 카드 쓰기, 효도잔치, 생신상 차리기 등 다양한 활동거리들이 있다. 따라서 활동터전에 집착하지 않고 보고서들에 실린 다양한 활동거리에 관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교사는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봉사학습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교사가 봉사활동거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질 때 학생의 다양한 취향과 개성을 반영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거나 학생 스스로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소규모의 모둠 형태의 학생중심 봉사활동을 기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서 제시한 다양한 연구 보고서로부터 체계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기관에 관한 구체적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이 도덕과와 연계된 봉사학습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함으로써 노력과 수고를 덜고, 쉽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터전의 소재여부를 파악하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 Ⅴ. 결론

인성과 시민성의 함양은 실천적 체험의 맥락을 요구한다. 도덕과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교사들이나 관련된 학자들은 실천과 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실 수업의 제한된 맥락 안에서 실천적 체험을 제공하고자 역할 놀이나 실천의 다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행해왔다. 하지만 가상적 맥락에서의 숙고나 다짐은 동기화와 효과 면에서 제한적 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교실이라는 제한된 학습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으로 학습공간을 확장하고, 감동적 사례나 가치갈등의 사례들을 통한 간접적 체험으로부터 살아있는 체험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은 도덕과 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과 시민성의 함양에 기여하는 길이다.

봉사학습은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의 목표에 기여하고, 파행과 왜곡으로 논란되는 많은 봉사활동의 문제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다. 봉사활동의 교육적 기대효과들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경험했기에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활동의 경험을 공공이슈나 가치들과 연관하여 반성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숙고하고 논의할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반성적 숙고의 기회 없이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타인을 위한 자선적 활동에 그칠 수 있다.

현재 학교의 분위기와 여건에서 도덕과 교육과 연계된 봉사학습의 도입은 지식위주의 개인적 분위기의 극복, 시간의 확보,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모색 과 같은 어려움의 극복을 요구할 뿐 아니라 봉사활동의 정상운영이라는 부담을 도덕 담당 교사에게 전가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덕과 교육에서의 실천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봉사학습은 새로운 부담과 도전인 것만은 아니다. 봉사학습의 활성화는 효과적인 도덕과 교수학습의 운영이나 다름없다.

교사들이 직전교육이나 현직교육에서 봉사학습을 배우고, 이미 개발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관련 봉사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면, 봉사학습을 시행할 때 오는 어려움은 줄어들 수 있다. 도덕과 교육과 봉사학습의 연계운영이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규학교 교육과정 또는 정규 교과 시간들 중 어떻게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자주 체험학습 형태로 봉사활동이 시행되어져야 하고 또 시행될 수 있는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이 얼마나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교육부 (1996). 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운영방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부 (2000). 도덕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3-6학년.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김전승 (2000). 학생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정책. IVY 2001 한국위원회 정책토론회, 토론 원고. 25-29.

김정배 · 고원영 · 정익재 (1999). 21세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추진 방향. 서울: 한국청소년 개발원.

김정배 · 정익재 (2000).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개발원.

김정배 외 (2001). 자원봉사 활동거리 개발(III). 서울: 한국청소년 개발원.

문성학 (2001). 칸트 도덕철학의 관점에서 본 현행 인성교육의 문제점. 철학논총. 23(1). 93-133.

박효종 (2001). 윤리도덕의 위기와 인성교육의 방법. 한국 중등교육의 위기의 타개를 위한 방향 모색,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술대회. 77-95.

박효종 외 (2002). 봉사학습을 위한 봉사활동실태조사. 도덕과 교육. 14. 270-287.

신차균 (2000). 체험중심 인성교육의 이념과 실제. 교육철학. 23. 205-225.

윤정일 외 (1998). 학생과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이광호 외 (1996).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개발원.

정세구 (1996). 도덕 윤리과 교육의 당면과제. 도덕윤리과 교육. 7. 15-39.

조강모 (2001). 인성교육을 위한 봉사활동 수업모형의 탐색. 초등교육연구 15(2). 1-30.

최윤진 (2000). 학생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정책. IVY 2001 한국위원회 정책토론회. 토론 원고. 39-40.

최현섭 (2000). 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정책. IVY 2001 한국위원회 정책토론회. 발표 원고. 7-18.

추병완 (1999).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Allan, C. (1993). The case for integrating service learning into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The Gender 13*. 1993. 11-13.

Alliance for Service-Learning in Education Reform(1997). Standards of quality for school-based service-learning. *The Social Studies* 88.

Anderson, S. M. (1999). *Mandatory community service: citizenship education or involuntary*

*servi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45963).

Battistoni, R. M.(2000). Service learning and civic education, Mann, Scheilah (ed). *Education for civic engagement in democrac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47065).

Chapin J. R. (1998). Is service learning a good idea? data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1998. *The Social Studies* 89. 205-211.

Conrad, D. & D. Hedin (1989).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programs*. Washington DC: Office of Educational and Improvem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3569).

Erikson, E. N. (1969).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Hepburn, M. A.(1997). Service learning in civic education: A concept with long study roots. *Theory into Practice* 36(summer).

Hepburn, M. A.(2000) Service learning and civic education in the schools: what does recent research tell us? In Mann, Scheilah (ed). *Education for civic engagement in democrac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47065).

Kahne, J. & J. Westhimer. (1996). In service of what? The politics of service learning. *Phi Delta Kappan* 77(may).

Kendall, Jane C. (1990). Combining service and learning: An introduction. in Jane C. Kendall(eds). *Combining service and learning: A resource book for community and public service*. Raleigh, N.C.: National Society for Internships and Experientia Education.

Kinsley, C. (1997). Elementary school programs. in Wade R. C. *Community service learning*.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Kraft, R. J. (1996). Service learning: An introduction to it's theory, practice and effect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28. 131-159.

Niemi, R. G. (ed) (2000). Community service by high school studies: A cure for civics ills?. *Political Behavior 22*. 45-69.

Radest, H. (1993). *Community service: Encounter with strangers*. Westport, Conn.: Praeger.

Raskoff, S. & R. A. Sundeen. (1998). Youth socialization and civic participation: The role of secondary schools in promoting community service in Southern Californi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7(march). 66-87.

Rhoads, R. A. (1997) *Community service and higher learning: Explorations of caring self*.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Rutter, R. A. & F. M. Newmann (1989). The potential of community service to enhance civic responsibility. *Social Education* 53. 371-374.

Wade, R. C. (1997). *Community service learning*.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Yates, M. (1995). *Community service in adolescence: Implications for moral-political awarenes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61st, Indiana poli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82358).

* 논문접수 2003년 5월 16일 / 1차 심사 2003년 7월 24일 / 2차 심사 2003년 7월 28일

* 박효종: 카톨릭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저서로 「한국의 보수주의」,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국가와 권위」가 있다.

e-mail: parkp@snu.ac.kr

* 손경원: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 중이다. 관심분야는 도덕철학, 정치철학, 도덕교육이다.

e-mail: windyskw@yahoo.co.kr

Abstract

# The Study of Service Learning for Improving the Practice of Community Service
##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Community Service into Moral Education-

Park, Hyo-Chong* · Son, Kyu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service learning as an alternative of compulsory community service. Community service, which had been part of school curriculum to strengthen character education, has caused many problems in practice. Thus service learning has been initiated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Service learning is a kind of community service which is systematized from prospective of learning, and has four key elements: reciprocity between the server and the person or group being served, integrating into civic education, giving the chance of reflection, cooperating with community. Service learning requires more systematized educational endeavors of schools regarding student' service activity. Service learning integrated into moral educ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prominent alternative which may deal with problems of community service. Nevertheless, the service learning has a lot of challenges, such as the individualistic culture of public schools, insufficiency of time for teachers, and their lack of experiences of community service.

This study claims that these challenges could be met by pre-service or in-service teacher training about theory and method of service learning. If teachers are able to utilize community service programs, their burdens of service learning may be reduced, and cooperations with community service agencies obtain more effectively.

*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